



■ 2019학년도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9.1.30.)

1/31(목), 2019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월 31일(목) 오전 11시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2019학년도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 작년 12월 1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학생·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착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2019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함.
- ▲ 한 달여 기간 동안 2019 수능 ‘수학 영역(가/나)’과 ‘국어 영역’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현직 교사 및 해당 교과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해 분석함.
- ▲ 31일 기자회견에서는 분석 결과 발표와 함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된 향후 일정과 절차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월 31일(목) 오전 11시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2019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11일 사교육걱정은 2019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학생·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은 2019 수능 문제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으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다는 여론과 학생·학부모의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고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능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다수 학부모의 민원이 본 단체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의 성격과 목적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국가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고(법 4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명시(법 4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학생·학부모에게 발생한 피해도 국가가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학생·학부모가 2019 수능으로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문제 분석에 돌입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2019 수능 중 ‘수학영역(가/나)’과 국어영역 문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교육과정 근거에 의거해 분석했으며, 현직 교사 및 해당 교과목의 교육과정 전문가 10명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에는 분석 결과와 함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된 향후 일정 및 현 수능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19학년도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일 시 : 2019. 1. 31.(목) 11시

■ 주요내용

- 2019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 결과
-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향후 일정
- 수능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

2019. 1. 3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